

따사로운 봄과 같이 싱그러운

청소년들과 생활하면서



조 달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사무총장

'가정의 벚' 가족 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해 인사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여년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격려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봄과 같은 청소년

인생의 시작은 청소년기요, 계절의 시작은 봄이라 하였습니다.

청소년기는 그 특성이 매우 불안정하여 질풍노도의 시기이며 인생 중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 시기를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 속에 모든 생명들이 깨어나는 계절의 시작인 봄에 비유하여 그 소중한 뜻을 담았다고 생각됩니다.

인생사에서 한순간 한순간들, 하루하루가 뜻 없는 순간이 있겠습니다. 까마는 굳이 좋은 의미와 중요함을 부여하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큰 뜻을 담아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청소년의 달로 기념하는 것이라 봅니다.

필자가 20여 년간 청소년지도자

로서 활동해 오면서 매년 이맘때면 단체회보나 신문, 라디오, TV방송국에서 원고청탁 또는 출연을 요청해 오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한 섭섭하기도 하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필요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니, 내일의 주인이니, 희망이니 하시지만 정작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해 주셨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청소년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 또한 심각합니다. 이는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각 언론에서 청소년들에게 희망

과 꿈을 심어주는 내용, 관심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기성 세대들은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그리고 청소년단체들의 사업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가정의 벚'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화목한 가정, 맑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베푸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작은 샘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 바다를 이룬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비록 개인에게는 작은 관심과 사랑이지만, 이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면 맑고 맑고 깨끗하고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어나



가는 근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위해
필자가 몸을 담고 20여 년간 봉사하고 있는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로서 1966년 4월에 설립되어 전국 20개의 지부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지부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 취지는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보시정신을 함양케하여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여 우리의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문화예절을 계승 발전시키는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함을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20여개의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스스로 자정능력을 길러 신고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YP(유스 패트롤)사업'을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상의 유해환경을 감시·고발하는 'CK사업'(사이버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여 한국의 문화와 청소년들 간의 상호 우의를 돋독히 하는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우리문화 체험활동 등을 실시,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체·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해 우리 전통문화 체험나들이, '장애인과 하나되어'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 제작 보급

사업', 전국 청소년 전통예술에 관련된 동아리와 개인전수자를 위해 '청소년 전통문화 예술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등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유스리더쉽 아카데미'를 청소년동아리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한·중 국제교류사업'을 2004년도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청소년들이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희망을 갖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다시한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싱그러운 봄 햇살을 맞으며 청소년과 함께하기 위해 내방을 나가려 합니다. '가정의 벚' 가족 여러분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